

# 경북도, 예산확보·지역발전 위해 국민의힘과 머리 맞댔다

### 정책현안 대응전략 정책협의회 APEC 특별법 개정 등 과제 설명 낙동강 공원 조성 등 57건 건의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함께 논의돼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경북도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상황과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을 설명했다. APEC 특별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특별법 등을 포함해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산업



경북도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경북도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년에 비해 당정책협의회가 빨리 개최된 만큼 더 빨리 준비해서 예산과 정책현안을 협의하며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 정부위 소관 2건,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과방위 소관 5건, APEC 특별지원사업 등 외통위 소관 2건, 국립 세계유산원 등 문체위 소관 5건, 산림 미래 혁신센터 등 농해수위 소관 6건, 백신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등 국토위 소관 22건 등 총 57건을 건의했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

되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큼 도민의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 마음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신안군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 운영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16회 자원순환의 날’과 연계하여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종이팩과 폐전지를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원재료 100% 수입 의존인 종이팩과 수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전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는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이 운영되며, 군민들은 종이팩과 폐전지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전남도, 377억 확보... ‘이모빌리티산업’ 해외진출 발판

### 6개 공모사업 선정 예산 마련 지역 기업과 베트남·인니 등 현지 조립공장 등 수출 추진

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2024년과 2025년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377억 원을 확보, 기업의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2024년 공모 선정 주요 사업은 ▲ 이모빌리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형 초소형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

발 82억 원 ▲이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반 구축 40억 원 등이다. 영광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적합한 차량 개발, 제조원가 절감 및 시생산 지원 센터의 장비(8종)를 활용한 부품 생산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생산 부품은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조립 판매해 관세 및 원가절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172억 원이다. 충돌시험규정 강화에 대비한 충돌시험장 확장 및 장

비 구축 등을 추진해 호남권 유일 충돌안전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기업과 현대자동차·KGM 등 완성차 기업의 충돌시험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10억 원의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영광대마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충돌안전 및 전자과 적합성 시험인증센터와 부품생산 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인프라와 이모빌리티 기업을 집적화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기업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타깃으로 현지 조립 공장 설립 및 공적개발원조(ODA), 포용적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유치 등 전기이륜차의 동남아 수출 기반 확대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시군별 특화된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호남권 미래차 충돌안전 클러스터와 전자과 인증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테크노링 구축 등 미래차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

/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 영덕군 송이버섯 풍년 기원제 올려

경북 영덕군은 영덕대개와 함께 자연산 송이버섯의 풍년과 생산자의 안전 기원을 위해 지품면 국사봉에서 풍년 기원제를 지난 10일 지냈다.

이날 기원제는 영덕군을 비롯해 영덕군산림조합,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청년유도회, 영덕송이생산자협의회, 영덕군임업후계자협의회가 참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영덕군은 송이버섯 생산량에서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산지로, 2017년부터 송이 축제를 통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영덕(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탄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업무협약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이하 KIOST)과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 증진 및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분야는 ▲해양바이오 관련 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 기업 등의

실증화 지원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교류 ▲해양바이오 및 해양 조사 관련 장비·시설 등의 인프라 공동 활용 ▲해양바이오 벤처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해양자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 전문성이 연계되면 우리 군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광주시, 추석연휴 곳곳서 문화행사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가 광주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퓨전뮤지컬, 국악상설공연, 민속놀이·전통공예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광주 곳곳에서 진행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서구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상설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16일)와 ‘남상일과 놀다가(歌) 쇼(show)’ (17일)를 선보인다.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는 판소리에 뮤지컬을 더한 퓨전 뮤지컬이며, ‘남상일과 놀다가(歌) 쇼(show)’는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트로트, 민요, 판소리 등 음악들을 통해 우리 가락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박물관과 야외마당에서 ‘2024년 추석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민속놀이체험(14~18일), 퓨전 국악공연(16~17일), 추석다과상 만들기 등 전통공예체험(16~17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양수년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중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공동선언문 채택 /사진 문체부  
▲해리스, ‘트럼프에 승리’ 자평...“할 일 아주 많아” 경계도

▲태국 총리 공무원 제복입고 손하트했다고 ‘헌법 위반 혐의’ 조사 직면  
▲美 42개 주 법무장관 “소셜미디어에 경고 표시 넣어야”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 25만명 보호 지위 상실 /사진 뉴스스  
▲“이주 발표되는 美 8월 소비자·생산자 물가...금리 인하 폭 결정한다”